

율법에 대한 칼뱅의 이해

이성호(고려신학대학원 역사신학)

I. 문제제기

한국인들이 법에 대한 칼뱅의 사상을 논의할 때 어려움을 느끼는 주된 이유는 번역에서 비롯된다. 이것은 칼뱅뿐만 아니라 법과 관련된 그의 모든 신학적 논의에도 해당된다. 영어로 표기되는 법(law)은 어떤 경우에는 ‘율법’으로 번역되지만 다른 경우에는 그냥 ‘법’으로 번역이 된다. 전자는 하나님의 법을, 후자는 인간이 만든 실정법을 함의한다는 인상을 주지만 실제로 두 단어는 동일한 실체를 가리키고 있다. 어떤 경우에는 (특히 복음과 관련하여 사용될 때) 율법이 구약의 법을 가리킨다고 오해하기도 하는데 ‘율법’이 ‘법’과 동일하다는 점을 기억한다면 그와 같은 오해는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 필요한 경우에 율법과 법을 교차적으로 사용하겠지만 두 단어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처음부터 유의할 필요가 있다.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이지만 율법에 대한 이해에서 칼뱅의 독특성이 지나치게 강조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특별히 율법의 제3용법과 관련된 논의에서 두드러졌다. 율법의 제3용법은 루터보다는 멜랑흐톤의 견해로 알려졌고 그 결과 루터파 내에서도 루터와 멜랑흐톤이 서로 다르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루터가 제3 용법을 적극적으로 혹은 명시적으로 주장한 것은 아니지만 제3 용법에 대하여 분명히 언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까지도 언급하였다는 것이 점점 분명해지고 있다.¹ 루터에 대한 지금까지 오해는 그 당시 중세 말 성경해석 전통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에서 비롯되었다.² 1577년의 일치신조(Formula of Concord)에서 율법의 제3용법이 교리로 받아들여졌다는 것은 이 교리적 주제에 있어서 루터파와 개혁파 사이뿐만 아니라 루터와 개혁파 사이에도 상당한 일치가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II. 16세기 역사적 상황

칼뱅의 다른 신학 분야도 마찬가지이지만 칼뱅의 율법 이해 역시 그 당시 역사적 상황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³ 이와 같은 역사적 상황을 놓치게 되면 칼뱅의 신학이 지나치게 독창적인 신학이라는 오해가 생길 수 있다. 칼뱅은 스스로 공교회 신학자라고 생각하였으며 종교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기존의 모든 신학사상을 타도하려고 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칼뱅은 중세 신학

1. E. A. Engelbrecht, "Luther's Threefold Use of the Law," *CTQ* 75 (2011): 135-150.

2. Engelbrecht, "Luther's Threefold Use of the Law," 135.

3. 칼뱅의 율법 이해에 대한 가장 권위 있는 연구서로는 다음 저서를 참고하라. I. John Hesselink, *Calvin's Concept of the Law* (Allison Park: Pickwick Publications, 1992).

과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는 일치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율법에 대한 이해도 마찬가지이다. 예를 들어서 율법의 본질이나 율법의 속성에 있어서는 중세 최고의 신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와 별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율법 이해에 있어서 종교개혁과 로마교회와 중요한 차이가 있었다면 그것은 주로 율법의 용법과 관련한 것이었다. 대표적인 예로 로마교회 역시 성도들에게 십계명을 열심히 가르쳤다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종교개혁 이전에는 번역된 성경이 거의 전무하였기 때문에 성경은 평신도들에게 접근이 거의 불가능하였다. 반면 성경 교리의 단순한 요약이라고 할 수 있는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은 성도들에게 매우 익숙한 내용이었다. 그 중에서 로마 교회가 십계명을 가르친 주된 목적은 신자들에게 죄를 깨닫도록 하기 위함이었다.⁴ 이 점에 있어서는 로마 교회와 개신교회가 차이점이 전혀 없었다. 하지만 로마 교회는 죄를 깨달은 성도들에게 공포심을 심어주어서 그들을 고해성사실로 인도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신자의 고백을 들은 사제는 보속(satisfaction)이라는 이름으로 선행을 요구하였고 이때 십계명은 형벌을 면하기 위한 안내서의 역할을 하였다. 모든 종교개혁가들은 이와 같은 개념을 거부하였고 십계명을 통해 죄를 깨달은 성도들이 사제의 중보없이 그리스도께 직접 갈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것이 종교개혁가들이 확보하게 된 복음이었으며 십계명은 더 이상 형벌을 면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없었다.

루터를 비롯한 종교개혁가들은 결코 이신칭의의 이름으로 율법에 대적하지 않았지만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이들 중에 율법 자체를 거부하는 이들이 생겨났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반율법주의자들이라고 불렸는데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들로 나타났다. 이들 중에는 율법이 거듭난 신

4. C. Lindberg, *The European Reformations* (Hoboken: Wiley & Blackwell, 2021; 3rd ed.), 52.

자들에게 더 이상 율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방종주의도 있었고,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따라 율법이 아니라 사랑에 따라 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재세레파들도 있었다.⁵ 이들은 오히려 일반인들보다 더 엄격하게 율법적인 삶을 추구하였다.

칼뱅은 율법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이것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가 대학에서 법을 전공한 법률가였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⁶ 칼뱅은 당대 프랑스에서 최고의 법학 대학이라고 할 수 있는 오를레앙 대학에서 “법학자들의 왕자”라고 불리는 교수들로부터 법학을 공부를 하고 1531년에는 석사 학위를 취득하였다.⁷ 칼뱅은 법의 본질을 잘 이해했을 뿐 아니라 법이 가지고 있는 유용성도 잘 알고 있었다. 무엇보다 그 당시 흥기하고 있었던 인문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법을 해석하는데 있어서도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칼뱅은 교회개혁을 위해서 법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었다. 그가 제네바 교회를 개혁하기 위하여 교회법을 친히 제정하였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한다.

칼뱅이 사역하였던 제네바 안에서도 반율법적인 성향을 보이는 자들이 있었다. 이들은 주로 “방종주의자”(Libertines)라고 불렸고 그들의 대표적인 지도자는 아미 페랭(A. Perrin, 1500-1561)이었다.⁸ 이들은 반율법주의자 중에서도 최악이라고 할 수 있었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구실로 선과 악의 구

5. 율법에 대한 재세레파의 견해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을 참고할. C. G. Brunk, “Reflections on the Anabaptist View of Law and Morality,” *CGR* 1 (1983): 1-20.

6. J. Witte, “Calvin the Lawyer” in ed. *Tributes to John Calvin: A Celebration of his Quincentenary* (Louisville: P&R, 2010): 34-58.

7. 브루스 고든, 『칼뱅』, 이재근 역 (서울:IVP, 2009), 63-5.

8. F. L. Battles, “Introduction,” in ed. *John Calvin’s Sermons on the Ten Commandments* (Grand Rapids: Baker, 1980), 14-5.

별을 제거함으로써 자신들의 부덕이나 악을 정당화했기 때문이었다. 이들은 로마 교회가 개혁신교회를 비난하는 구실이 되었고 칼뱅은 이들과 확실한 선을 그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칼뱅은 이들에게 대항하는 논문을 썼을 뿐 아니라 십계명에 대해서 설교를 하기도 하였고, 방대한 주석을 집필하기도 하였다. 물론 이 모든 핵심적인 교훈들이 『기독교 강요』에서 체계적으로 정리되었다.

III. 율법의 성격

칼뱅은 『기독교 강요』에서 율법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나는⁹ 율법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이해한다. 단지 삶의 경건하고 의로운 규범을 진술한 십계명을 의미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수하신 “경건의 요체”(form of religion)이다.”¹⁰ 칼뱅 스스로가 내린 이 정의는 그가 율법을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준다. 칼뱅은 율법을 경건의 요체¹¹라고 규정한다. 칼뱅에 따르면 율법은 단지 신자들을 향한 윤리적인 지침 이상을 의미한다. 그 이유는 율법이 단지 인간의 영역을 넘어서 하나님과 관계하기 때문이다.

율법이 종교의 요체인 가장 중요한 이유는 율법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기독교 강요』 제2권의 제목이 확실하게 보여 준다.

9. Calvin, *Institutes*, II. viii. 59.

10. Calvin, *Institutes*, II. vii. 11.

11. “formam religionis”은 종종 종교 혹은 경건의 양식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원래의 의미가 약하다고 할 수 있다. “종교의 요체”란 어구는 주로 수도원에서 사용되었는데 청빈, 독신, 순명이 그렇게 불렸다. J. Mixson, “Observant Reform’s Conceptual Frameworks between Principles and Practices,” in ed. J. Mixson & B. Roest, *A Companion to Observant Reform in the Late Middle Ages and Beyond* (Leiden: E. J. Brill, 2015): 60.

제2권은 구속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다루는데, 이 지식은 “율법 아래에서 조상들에게, 그 다음에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계시되었다.” 『기독교 강요』 초판은 이 사실을 훨씬 선명하게 독자들에게 가르쳐 준다. 겨우 6장으로 구성된 초판의 첫 장은 율법을 다루는데, 이곳에서 칼뱅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인간에 대한 지식 다음에 율법을 다루고 십계명을 해설한 다음 칭의를 다룬다.¹²

율법이 하나님의 지식을 계시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율법에 하나님의 뜻(의지)이 표현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율법을 이해하는 또 하나의 핵심적인 개념이다. 칼뱅은 『기독교강요』나 자신의 저술에서 율법이 하나님의 의지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강조한다. 한 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모든 의를 위한 완전한 규범이 우리에게 제시되는데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영원한 뜻(the eternal will of God)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¹³ 심지어 칼뱅은 하나님께서 율법 안에 자기 자신을 계시하셨다고까지 분명하게 말한다.¹⁴

율법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의 의(righteousness)이다. 칼뱅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율법에서 우리가 의의 완전함을 배운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율법에 대한 완전한 순종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의라고 할 수 있다.”¹⁵ 이 완전한 순종에 대한 보상은 영원한 구원이다. 물론 이 순종을 누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는 또 다른 문제이기는 하지만 영원한 구원이 완전한 순종

12. J. Calvin, *Institutes of Christian Religion 1536 Ed.*, trans. F. L. Battles (Grand Rapids: Erdmans, 1975), 15-40.

13. Calvin, *Instruction in Faith*(1537), trans. P. T. Fuhrmann (Louisville: Westminster/John Knox Press, 1992), 28.

14. Calvin, *Commentary on the Prophet Isaiah*, trans. W. Pringle (Grand Rapids: Baker, 1993; reprint), 290. 이사야 20장 8절(“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주석하면서 칼뱅은 율법과 증거(testimony)를 별개의 것으로 보지 않고 증거를 율법에 대한 보충적인 개념이라고 설명한다.

15. Calvin, *Institutes*, II. vii. 3.

에 대한 보상이라는 것은 주님의 가르침에 보았을 때 분명한 사실이다.

율법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만 검토하더라도 칼뱅의 신학에 있어서는 어떠한 형태의 반율법주의도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율법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완전한 의를 가르쳐 주기 때문에, 율법을 거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것이며, 그 뜻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는 것이며, 결과적으로 하나님 자신을 거부하는 것이다. 간단하게 말해서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을 계시한다. 따라서 인간의 생명과 사명이 율법의 준수 여부에 달려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¹⁶

IV. 율법과 복음의 관계

율법에 대한 긍정적인 칼뱅의 접근은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비교해 보았을 때 더욱 선명하게 드러난다. 일반적으로 종교개혁가들이 율법과 복음을 서로 대조적인 것으로 이해했다고 알려졌지만,¹⁷ 적어도 종교개혁가들에게 있어서 대립이 되는 것은 복음과 율법이 아니라 복음과 행위이다. 복음과 율법은 서로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심지어 율법과 복음의 경계가 허물어진다는 인상을 주기까지 한다. 물론 칼뱅이 율법과 복음을 서로 혼동할 정도로 수준 낮은 신학자는 아니었다. 복음과 관련하여 칼뱅이 강조한 것은 율법이 약속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바꾸어 말하면 율법에 대한 오해는 약속을 율법에서 배제하기 때문에 비롯된다.

16. Calvin, *Institutes*, II. vii. 3.

17. T. K. Johnson, "Law and Gospel: The Hermeneutical and Homiletical Key to Reformation Theology and Ethics," *ERT* (2019): 56.

로마서의 논지를 따라 칼뱅은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율법이 수 백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축복의 약속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롭게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칼뱅에 따르면 여기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거는 의식법이다. 구약에 기록된 의식법은 수많은 제사법으로 가득 차 있다. 이것을 문자 그대로 해석한다면 (그림자와 상징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제사에 사용되는 송아지의 기름 자체가 어떻게 하나님과 죄인의 관계를 화목하게 할 수 있겠는가? 율법의 규정들과 율법의 본질적인 내용을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제사법이 참된 의미를 가지는 이유는 그것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율법의 여러 형식들이 율법의 목적과 분리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무의미하다고 정죄해야만 한다.”¹⁸

율법의 내용과 율법의 목적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율법과 그리스도의 관계를 알아야 한다. 율법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은 그리스도 없이 생각하기 때문이다. 칼뱅은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마지막)이라는 것(롬 10:4), 또한 영으로서 율법의 조문들을 살리는 분이라는 것(고후 3:17 & 3:6)을 잘 알고 있었다. 바울의 가르침에 따르면 그리스도와 율법은 결코 분리할 수 없다. 그리스도 없이 율법을 해석한다는 것은 종점을 고려하지 않고 해석하려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앞에서 우리는 칼뱅이 율법을 하나님의 완전한 의라고 정의했다는 것을 기억한다. 따라서 율법이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율법에 나타난 의가 성취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값없는 전가”와 “중생의 영”을 신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이다.¹⁹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이중적 사역이 없다면 율

18. Calvin, *Institutes*, II. vii. 1.

19. Calvin, *Institutes*, II. vii. 2. 칼뱅에게 있어서 전가와 중생은 오늘날의 관점에서 칭의와 성화를 의미

법은 그 자체로 신자들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 칼뱅은 그리스도 없는 율법을 별거벗은 율법(*nudam Legem, bare law*)이라고 불렀으며 이 개념은 바울이 대항하였던 거짓 교사들이 가르쳤던 교훈이라고 주장하였다.²⁰

V. 율법의 연약함

칼뱅의 가르침에 따르면 율법은 경건의 요체이며, 하나님의 뜻이며, 완전한 의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어떠한 결함도 없다. 하지만 바울 사도가 율법의 연약함에 대해서도 언급한 것도 사실이다.(롬 8:3-4) 뛰어난 성경주석가였던 칼뱅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율법의 연약함이 반율법주의나 율법 무용론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 역시 칼뱅은 잘 알고 있었다. 엄밀히 말해서 율법의 연약함은 율법에 뭔가 부족함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율법의 연약함은 율법 자체가 아니라 타락한 인간의 죄성에서 비롯한다. 칼뱅은 인간의 타락과 전적 무능력에 대해서는 율법을 다루기 직전까지(2권 1장-6장) 충분히 상세히 다루었다.

간단히 요약해서, 율법은 영생을 약속하지만 타락한 인간은 율법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은 그 약속을 스스로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이것 하나만 기억할 필요가 있다. 약속의 선함을 통해서 인간은 훨씬 더 자신의 비참함을 분별하게 될 뿐이다.”²¹ 그렇다면 인간의 전적 타락에서 비롯한 율법의 연약함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큰 복을 약속해 주셨지만 실제로 우

한다. 이것은 3권 3장과 3권 11장에서 자세하게 다루어진다.

20. Calvin, *Institutes*, II. vii. 2.

21. Calvin, *Institutes*, II. vii. 3.

리가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면 하나님은 인간을 조롱하는 것이 아닌가? 사실 이 질문은 펠라기우스가 이미 1000년 전에 제기한 질문이기도 하였다. 펠라기우스는 신자들이 할 수 있는 것 이상을, 즉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정의를 모욕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²²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은 부당하시다는 펠라기우스의 주장에 대해서 아우구스티누스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천사처럼 순결하게 만드실 수 있지만 실제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성경이 그렇게 선포하기 때문이라고 답을 하였다. 칼뱅은 아우구스티누스의 답변에 반대하지는 않지만 그 답변이 충분하지는 않다고 생각하였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진리를 서로 대립적으로 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칼뱅은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라는 제자들에 대한 질문에 “사람으로서 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마 19:26)라고 예수님께서 답을 하신 것을 지적하였다.²³

비록 인간이 율법을 성취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가능하게 하신다. 그 방식은 인간이 율법을 완전히 수행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성경이 선언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율법의 약속들이 취소되지는 않는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보시지 않고, 우리가 믿음으로 복음에 제시된 은혜를 받아들인다면 그 약속들은 유효하기 때문이다.²⁴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한 순종을 거부하시지 않고 오히려 부족한 것을 채우셔서 마치 우리가 율법의 조건들을 다 만족시킨 것으로 간주하여 율법의 약속을

22. Calvin, *Institutes*, II. vii. 4.

23. Calvin, *Institutes*, II. vii. 5.

24. Calvin, *Institutes*, II. vii. 4.

받게 하신다. 여기서 우리는 율법과 칭의 교리가 얼마나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가를 확인하게 되고, 칼뱅에게 있어서 율법과 복음은 상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보완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된다.

VI. 율법의 3가지 구분: 도덕법(moral), 의식법(ceremonial), 재판법(judicial)

칼뱅에 따르면 율법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는 율법의 3가지 구분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비롯된다. 이 율법의 3가지 구분은 율법의 3가지 용법과 종종 혼동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둘은 서로 무관하지는 않지만 완전히 구분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정리될 필요가 있다. 칼뱅은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선포한 법이 도덕법, 의식법(ceremonial), 재판법(judicial)으로 구분된다는 당시의 일반적인 견해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이 3중 구분은 토마스 아퀴나스와 같은 중세 신학자들이 체계적으로 정립했을 뿐만 아니라²⁵ 멜랑흐톤과 같은 종교개혁가들도 그대로 따랐다.

칼뱅은 도덕법을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속에 새긴 양심과 자연법(natural law)에 대한 증거”라고 정의한다.²⁶ 이 정의에서 알 수 있듯이 자연법은 칼뱅의 율법 이해에 대단히 중요한 개념이다. 『기독교 강요』에서는 다소 찾아보기 어렵지만 그의 주석에서 자연법이나 이와 유사한 용어들은 매우 빈번하게 등

25. S. J. Casselli, “The Threefold Division of the Law in the Thought of Aquinas,” *WTJ* 61. 2 (1999): 175-207.

26. Calvin, *Institutes*, IV. xx. 16.

장한다.²⁷ 칼뱅은 자연법을 도덕법과 동일하게 본다. 여기서 자연(*natura*)는 인간 외부에 존재하는 실체를 가리키지 않으며, 따라서 자연법도 오늘날 이해하는 자연법칙과 구분되어야 한다. 자연은 인간 본성에 가까운 개념이고 자연 속에 내재된 어떤 원리가 아니다. 이 법은 인간의 본성에 새겨진 살아계신 하나님의 적극적인 뜻이며 따라서 자연법은 칼뱅에게 있어서 결코 비인격적인 개념이 아니다. 이것이야말로 칼뱅이 그 당시 모든 일반적인 철학적 윤리와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다.²⁸

도덕법은 이 세상 모든 나라에 존재하는 법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다. 도덕법과 실정법은 구분되어야 하지만 둘을 별개로 보아서는 안 된다. 살인, 도적질, 간음, 거짓말은 율법만 금할 뿐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법도 금하고 있다. 물론 그 행위에 대한 벌은 각 나라마다 차이가 있지만, 그 모든 법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법이 정죄한 범죄들에 대해서 한 목소리로 형벌을 선고한다”는 점에서 동일한 목적으로 가진다.²⁹

칼뱅은 도덕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도덕법이란 두 가지 주제로 구성된다. 그 중 하나는 순전한 믿음과 경건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단순하게 명령한다. 다른 하나는 사람들을 진정한 애정으로 품에 안는다. 따라서 도덕법은 참되고 영원한 의의 준칙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를 원하는 모든 나라와 모든 시대의 사람들을 위해 제정되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진실로 예배해야 한다는 것과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은 그분의 영원하고 불변하는 뜻이기 때문이다.³⁰

27. Hesselink, *Calvin's Concept of the Law*, 60.

28. Hesselink, *Calvin's Concept of the Law*, 62.

29. Calvin, *Institutes*, IV. xx. 16.

30. Calvin, *Institutes*, IV. xx. 15.

간단하게 말하면 도덕법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은 시대나 장소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 이 점에서 도덕법은 의식법 및 재판법과 구별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의식법 및 재판법은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이고, 그 시기는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유용했기 때문이다. 보통 의식법과 재판법을 도덕법과 동일한 비중으로 보는 경우가 많은데, 도덕법의 첫째 부분(하나님 사랑)은 의식법으로, 둘째 부분은 재판법으로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행되었다. 따라서 항존법 혹은 보편법인 도덕법과 특정법(특정인과 특정시대를 위한)인 의식법 및 재판법으로 구분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의식법과 재판법은 어린 아이와 같은 이스라엘에게 가정교사와 같은 역할을 했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폐지되었으며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³¹ 하지만 이 두 법, 특히 의식법은 장차 올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점에서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 된다는 성경의 가르침을 확실하게 보증한다.

VII. 율법의 3가지 용법

율법의 3가지 용법은 칼뱅의 율법 이해와 관련하여 가장 많이 논의된 주제이다. 본질과 용법은 세밀하게 구분될 필요가 있다. 칼을 예로 들어보자. 칼의 본질은 베는 것이다. 모든 칼은 사물을 찌르거나 자른다. 이 본질적 기능 자체는 매우 유용한 것이지만 항상 인간들에게 유익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같은 칼이라도 누가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 그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 조폭의 손에 든 칼은 사람을 죽이지만 의사의 손에 든 칼은 사람을 살린다. 이 차이는

31. Calvin, *Institutes*, IV. xx. 15.

율법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그 당시 로마 교회는 율법을 손아귀에 쥐고 있으면서 성도들의 양심을 억압하고 있었다. 교회의 서가는 교회법에 대한 수많은 책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성도들은 그것들로부터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하고 있었다. 특히 율법은 성도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안내자가 아니라 걸림돌이었을 뿐이었다.

율법의 용법(*usus legis*, uses of the law)은 종교개혁이 본격적으로 정립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율법의 용법에 대한 기본적인 논의들이 전혀 없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3가지 용법이라는 용어는 종교개혁가들에 의해서 비로소 사용되기 시작하였고 그 개념들이 체계화되었다.³² 루터는 이 용법에 주목한 최초의 신학자였고, 비록 세 번째 용법을 거부하지는 않았지만 두 가지 용법을 확립하였다. 멜랑흐톤은 루터가 설명하지 않은 제3용법을 그의 『신학통론』(*Loci Communes*, 1535)에서 다루었으며, 칼뱅은 이것을 채택하여 『기독교 강요』에 상세하게 정리하였다.³³ 칼뱅이 루터나 멜랑흐톤과 달랐던 점은 제3의 용법을 율법의 가장 주된(*principal*) 용법으로 보았다는 점이다.

하나님의 완전한 의를 보여 주는 율법은 타락 전에는 영생의 복을 받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되었으나,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이 용법은 타락한 인간에게는 더 이상 적용될 수 없게 되었다. 하지만 율법은 여전히 하나님의 완전한 의로서 타락한 인간들에게 3가지 방식으로 유익하게 사용된다. 이 용법은 일반적으로 교육적 용법(*pedagogical use*), 시민적 용법(*civil use*), 규범적 용법(*normative*)으로 구분된다. 이와 같은 용어들은 칼뱅이 실제로 사용한 것도 아니고, 첫째와 둘째 용법의 순서에 대해서는 칼뱅이 루터나 멜랑흐톤과 서로 다

32. 권경철, “칼빈이 본 율법의 제3 용법: 멜랑흐톤과의 공통점이자 차이점,” 『역사신학논총』 (2017): 17.

33. J. Witte, Jr., “The Three Uses of the Law: A Protestant Sources of the Purposes of Criminal Punishment?”, *Journal of Religion* 10 (1994): 434-5.

르다는 것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³⁴

율법의 첫째 용법은 하나님의 의를 보여 줌으로서 인간의 불의를 드러내는 것이다. 이 점에서 율법은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한다.³⁵ 율법을 통해서 인간들은 비로소 지정한 자신의 모습을 본다. 율법 앞에서 인간은 자신의 무능과 죄책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인식하게 된다. 그 결과 인간은 자신의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진정으로 겸손하게 된다. 칼뱅은 율법의 이와 같은 기능을 결코 부정적으로 보거나 과소평가 하지 않는다. 자신이 죄를 깨닫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여정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용법은 교육적 용법이라고 불리고 루터파에게서는 율법의 가장 중요한 용법으로 인정을 받았다. 물론 이것은 택자들에게만 적용되고 유기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율법과 양심의 증거에 짓눌려 자신들이 갈 길을 갈 뿐이다.³⁶ 따라서 첫 번째 율법의 용법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악인들에게 달리 적용된다.

율법의 첫째 용법을 거울에 비유한 칼뱅은 둘째 용법을 고삐(halter)에 비유한다. 고삐가 제멋대로 뛰노는 말을 통제하듯이 율법은 악하고 불의한 자들의 죄악을 억누른다. 율법은 하나님의 완전한 뜻을 드러낼 뿐 아니라 그 뜻을 어기는 자에게 엄중한 형벌이 있다고 경고한다. 비록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무시한다고 하더라도 악한 자들이 무제한적으로 악을 행하지 않는 이유는 율법 때문이다. 율법의 이 기능은 사회의 질서와 평화를 유지하는 데 매우 필요하다.³⁷ 율법의 두 번째 기능이 없다면 인간들은 각자의 욕심에 따라 행동하게 될 것이

34. 권경철, “칼빈이 본 율법의 제3 용법,” 17. 비록 칼뱅이 멜랑흐톤의 『신학통론』을 많이 의지한 것은 사실이지만 완전히 그를 추종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35. Calvin, *Institutes*, II. vii. 7.

36. Calvin, *Institutes*, II. vii. 9.

37. Calvin, *Institutes*, II. vii. 10.

고 사람들은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행동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칼뱅은 율법의 세 번째 용법이자 주된 용법을 다룬다. 이 용법이 주된 이유는 율법의 고유한 목적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신자들, 즉 그들의 마음에 이미 성령이 거주하시고 통치하시는 중생한 자들에게 적용되기 때문이다.³⁸ 성령이 거주하시는 자들에게 율법이 필요할까? 그냥 내주하시는 성령에 따라 율법을 순종하면서 살면 되지 않는가? 이 점에 있어서 칼뱅은 아무리 성령을 사모하는 중생한 신자라도 육신의 나태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한다. 게으르고 고집 센 나귀에게 채찍이 필요하듯이 율법은 육신에 대해서 채찍과 같은 역할을 한다.³⁹

물론 율법은 채찍으로서만 신자들의 삶을 인도하는 것은 아니다. 율법은 또 한 당근의 역할도 수행한다. 물론 칼뱅이 당근이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지만 개념은 그의 설명 속에 내포되어 있다. 율법이 당근과 같은 역할을 하는 이유는 율법이 은혜의 약속을 수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윗은 율법 속에서 중보자를 이해하였기 때문에 율법이 즐겁고 달콤하다고 고백할 수 있었다. 율법은 신자들에게 자신의 요구를 듣지 않는 자들에게 벌을 가하는 경찰이 아니다. 간단히 말해서 신자의 삶은 경주와 같다.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기 위해서는 목표를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율법은 바로 그 종착점을 가리키는 역할을 한다.⁴⁰ 이 점에서 율법은 신자들을 위한 삶의 규범이다.

율법의 용법에 대한 구분은 반율법주의자들에 대한 강력한 변증이 된다. 성경에서 우리는 종종 “율법이 폐지되었다”는 표현을 종종 접하게 된다. 이런 구절들은 반율법주의자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확증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사

38. Calvin, *Institutes*, II. vii. 12.

39. Calvin, *Institutes*, II. vii. 12.

40. Calvin, *Institutes*, II. vii. 13.

용되었다. 비록 그들이 누군지는 정확하게 적시하지 않지만 칼뱅은 그들의 주장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 칼뱅이 보기에 그들은 율법 자체와 율법의 용법을 구분하지 못함으로 인해 율법 전체를 거부하는 오류에 빠지고 말았다. 율법이 폐지되었다는 말은 신자들이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되었다는 말이지 율법에 대한 순종에서 해방되었다는 말이 아니다.⁴¹ 율법은 여전히 신자의 삶을 인도하는 삶의 준칙이다.

VIII. 기록된 율법(십계명)에 대한 해석

율법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들을 설명한 다음, 이어서 칼뱅은 별도의 장을 할애하여 십계명을 통하여 율법의 내용을 해설한다. 여기서 우리는 십계명과 율법의 관계를 명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도덕법으로서 율법은 인간에게 이중적으로 전달된다. 하나는 자연법 혹은 본성법으로 인간의 마음에 새겨진 법이다. 다른 하나는 십계명의 두 돌판에 하나님께서 친히 쓰신 법이다. 마음에 새겨진 법과 돌판에 쓰인 법은 본질상 동일하다. 십계명이 필요한 이유는 인간의 나태와 교만 때문이며, 자연법에서 모호한 드러난 것을 보다 분명하게 그 내용을 전달하는 기능을 한다.⁴²

십계명이 자연법 보다는 더 명료하게 도덕법을 전달하지만 십계명의 의미가 자동적으로 인간들에게 전달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칼뱅이 『기독교강요』에서 많은 지면을 할애하여 십계명을 설명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실제로 그 당시에 십계명에 대한 그릇된 여러 해설들이 유행하고 있었고 칼뱅은

41. Calvin, *Institutes*, II. vii. 15.

42. Calvin, *Institutes*, II. viii. 2.

그것들을 논박할 필요성을 강하게 느꼈다. 반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 율법의 필요성을 변증하는 것도 중요하였지만, 율법주의 성향을 지녔던 자들에 대하여 올바른 율법의 해석을 제시하는 것도 칼뱅에게 중요한 사명이었다.

십계명을 해석하기에 앞서서 십계명을 구분하는 것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이 칼뱅의 신학적 특성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사실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는 십계명이라는 말도 등장하지 않고, 번호도 매겨져 있지 않다. 물론 십계명 내용 자체는 성경에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졌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두 부분으로 구분된다는 것에 대해서 신학적 일치가 있었지만 번호 매김에 있어서는 초대교회부터 불일치가 있었다. 로마 교회는 아우구스티누스 전통에 따라 일 계명과 이 계명을 하나로 묶고 제십 계명을 나누었으며, 루터 역시 이 전통에 충실하였다. 하지만 칼뱅은 이 전통적인 구분을 거부하고 오늘날 개혁파와 일치하는 오리겐의 전통을 채택하였는데 그 중요한 근거 중의 하나는 오리겐의 시대가 보다 순수한 시대였기 때문이었다.⁴³ 칼뱅이 아우구스티누스 신학에 충실하였지만 무비판적으로 추종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첫 돌판을 세 개의 계명으로 구분하고 그것을 삼위일체에 비견한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칼뱅은 판단하였다.

이 논문에서 칼뱅의 십계명 해설을 상세히 다루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이다. 하지만 몇 가지 중요한 예들을 통하여 칼뱅의 율법 이해를 살피는 것은 유익할 것이다. 십계명 해석에 있어서 칼뱅의 주된 논적은 로마 가톨릭 신학자들이었고, 그 다음으로는 재세례파들이었다. 이들은 모두 율법을 강조하지만 철학적인 개념들이나 비성경적인 해석으로 성도들을 오도하고 있었다. 칼뱅에 따르면 이것들은 성도들의 삶에 치명적인 해를 가져다주고 있었다.

43. Calvin, *Institutes*, II. viii. 12.

칼뱅에 의해 스쿨멘(schoolmen)이라고 불렸던 로마 가톨릭 신학자들은⁴⁴ 일반 신자들을 위한 율법과 수도사를 위한 조언(counsel)을 구분하였다. 율법과 조언의 구분은 산상수훈을 해석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이 명령은 모든 신자에게 주어진 것인가 아니면 수도사와 같은 특별한 자들에게 주어진 것인가? 스쿨멘들은 이런 명령은 보통의 신자들이 지킬 수 없다고 보았다. 사상수훈에 따르면 이 명령은 “제자”들에게 주어졌고 그 제자는 일반 신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을 철저히 따르기를 원하는 수도사들을 의미한다고 스쿨멘들은 주장하였다. 만약 이 명령이 특별한 이들에게 주어진 것이라면 그것은 율법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명령들은 “조언”(counsel)이라고 불렸다.

로마 교회에 대한 칼뱅의 비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로마 교회의 여공(餘貢, supererogation) 교리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⁴⁵ 로마 교회에 따르면 모든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보편적 계명이 있고, 특별한 사람에게 요구되는 계명이 있다. 이 특별한 계명들은 원하지 않으면 지키지 않아도 되지만 지키면 자신이 해야 할 의무보다 더 많은 의무를 행했기 때문에 공덕을 쌓을 수 있고, 그 남은 공덕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킬 수 있다. 이 특별한 계명들을 “완전함의 권고”(Counsels of Perfection)이라고 하는데 가난, 독신, 순명을 가리킨다. 가난은 소유를 포기하는 것이고, 독신은 정욕을 포기하는 것이고, 순명은 자신의 의지를 포기하는 것이다.

칼뱅에 따르면 율법과 조언을 구분하는 것은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사변일 뿐이다.⁴⁶

44. Calvin, *Institutes*, II. viii. 56.

45. 로버트 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해설』, 조계광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14), 335-6.

46. 『웨스트민스터 고백서』는 로마교회의 여공 교리는 단호하게 거부한다(16장 4항). 아무리 탁월한 성

이 인위적인 구분은 주 하나님을 입법자가 아니라 단지 조언자로 전락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하였다.⁴⁷ 물론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칼뱅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율법 중에서 아무리 작은 것도 쉬운 것은 하나도 없다. 그것은 율법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다. 하지만 신자들이 주님 안에 거할 때 능히 그 율법을 수행할 수 있다. 이 부분에서 칼뱅은 아우구스티누스의 유명한 경구를 인용한다.⁴⁸ “명하시니 것을 주시고, 원하시니 것을 명하소서!” 율법은 그 본질이 하나님의 의지이기 때문에 율법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가의 여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가의 여부이다.

칼뱅이 다음으로 거부한 스쿨멘의 사변적 구분은 사망에 이르는(mortal) 죄와 용서 가능한(venial) 죄의 구분이다.⁴⁹ 칼뱅은 모든 죄는 사망에 이르는 죄라고 보았기 때문에 용서 가능한 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비판한다. 스쿨멘에 따르면 용서받는 죄의 기준은 욕망에 있어서 고의성이 없는가의 여부이다. 하지만 칼뱅에 따르면 이와 같은 개념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심각한 손상을 가져다 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성도들의 죄는 죄의 성질에 따라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에 의해 용서받기 때문에 모든 죄는 사망에 이르는 죄이지만 동시에 용서가 가능한 죄이다.⁵⁰ 물론 칼뱅이 이 논의에 있어서 모든 죄가 아무런 차이 없이 다 똑같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은 칼뱅

인이라고 하더라도 마땅히 해야 할 일도 다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이상의 선행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최고의 순종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준에는 많이 미흡할 뿐이다. 이성호, 『비록에서 아멘까지』(안성: 그 책의 사람들, 2023), 325-6.

47. Calvin, *Institutes*, II. viii. 56.

48. Calvin, *Institutes*, II. viii. 57.

49.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해서는 다음 연구서를 참고하라. 신원하,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서울: IVP, 2012).

50. Calvin, *Institutes*, II. viii. 57.

의 이해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대교리문답에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개혁파 신학이 거부한 것은 사망에 이르는 죄와 용서 받는 죄의 구분이었으며 모든 죄가 다 똑같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다. 죄에는 경중이 있는데, 로마 교회는 용서 가능성을 경중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삼았다는 데 문제가 있다.⁵¹

IX. 결론: 율법의 목적

십계명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마치고 나서 칼뱅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제, 전(whole) 율법의 목적을 결정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삶을 신적인 순결함의 원형(archetype)에 일치시켜서 의를 충만하게 하는 것이다.”⁵² 율법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율법을 순종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표현한다.⁵³ 칼뱅은 율법을 가르치는 목적이 거룩한 삶을 통해 인간을 하나님께 더 연합시키고 더 달라붙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한다.⁵⁴

율법에 드러났듯이 거룩한 삶은 두 가지로 구성된다.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물론 이 둘은 분리되지 않는다. 진정한 이웃 사랑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서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율법의 목적은 깨끗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51. 이성호, 『비록에서 아멘까지』, 305-6.

52. Calvin, *Institutes*, II. viii. 51.

53. Calvin, *Institutes*, II. viii. 51.

54. Calvin, *Institutes*, II. viii. 51.

사랑”(딤후 1:5)이라고 분명히 가르쳤다.⁵⁵ 간단하게 말해 율법이 목적은 신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이웃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것이다.

율법에 대한 칼뱅의 균형잡힌 견해를 제대로 이해한다면 칼뱅에 대한 여러 비판들이 별 근거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칼뱅은 이신칭의라는 구실로 무율법 혹은 반율법에 빠지지 않았다. 또한 율법의 제3용법에 대한 강조가 그로 하여금 율법주의에 빠지게 하지도 않는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칼뱅에 있어서 율법은 신자의 삶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 않다. 칼뱅이 이해한 대로 율법을 잘 이해한다면 시편에 나타난 율법에 대한 다윗의 찬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시편 11:97)

55. Calvin, *Institutes*, II. viii. 51. 바울이 사용한 단어는 율법이 아니라 ‘교훈’(instruction)이다. 칼뱅은 교훈이라는 단어를 율법으로 변경하였다. *Institutes*에서 칼뱅은 성경 구절을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인용한다.